

스리랑카, 비상사태 선포로 긴장 고조

국별조사실

□ 주요 장관 해임으로 위기 고조

- 스리랑카의 찬드리카 쿠마라통가(Chandrika Kumaratunga) 대통령은 11월 4일 정부가 타밀 반군에 너무 많은 양보를 했다는 이유로 국방, 내무, 공보부의 3 장관을 전격 해임하고, 5일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함.
- 이번 비상사태로 경찰은 광범위한 체포권과 인신을 재판없이 무기한 구금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되고 수도 콜롬보에는 군병력이 배치되는 등 휴전 20개월 만에 내전이 재개될 위기를 맞고 있음¹⁾.
- 이러한 조치는 대통령과 총리간의 관계 악화²⁾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위크레메싱헤(Wickremasinghe)총리가 미국을 방문중인 상태에서 벌어진 사태로 총리는 대통령의 무책임한 행동을 비난

1) 스리랑카 내전은 인구의 74%를 차지하는 지배민족 싱할리족(불교)과 전인구의 17%인 소수민족 타밀족(힌두교)간의 분쟁으로 1983년 스리랑카로부터 완전독립을 주장하는 급진조직 '타밀 엘람 해방 호랑이(LTTE)'가 타밀족 내에서 주도권을 장악하면서 내전이 본격화되었음. 아시아에서 가장 긴 유혈분쟁으로 지난 20년 간 6만5천명의 사상자와 심각한 경제난을 유발시킨 본 내전은 지난 해 2월 노르웨이의 중재로 휴전협정이 체결되었음.

2) 2001년 초, 제1야당인 국가통일전선(UNF)을 이끌던 위크레메싱헤가 쿠마라통가 대통령의 독재정치를 강력하게 비판하여 의회의 불신임 투표를 결의하자, 쿠마라통가 대통령은 이에 맞서 2001년 10월 10일 의회를 해산하고 1년 12월 5일 총선을 실시하기로 하여 재집권을 도모함. 그러나 내전악화와 경기침체로 정국이 매우 혼미한 가운데 치러진 총선에서 국가통일전선(UNF)이 집권당인 인민동맹(PA)을 누르고 의회 과반수 확보에 성공하면서 7년만의 정권교체가 이뤄지게 되었음. 이후 국가통일전선(UNF)의 위크레메싱헤가 신임 총리로 임명된후, 대통령은 내각이 제안하는 정부 시책들을 지연시키거나 거부권을 행사하는 등, 대통령과 내각간의 대립이 심화되어 원만한 국정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하는 성명을 발표하였으며, 의회도 총리에 대한 지지의사를 표명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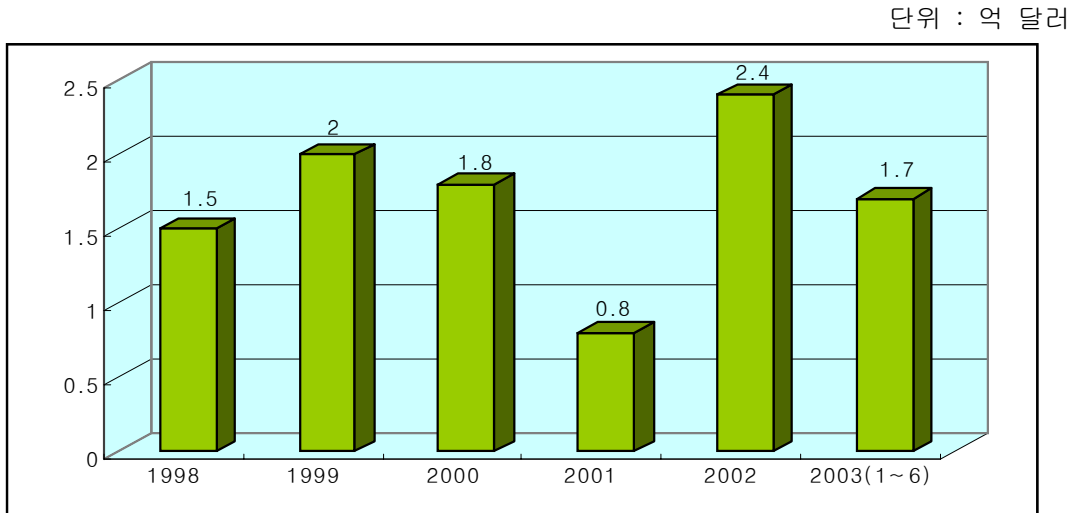
- 반군측은 이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 표명을 보이고 있지는 않으나, 11월 1일 자치지역 임시정부의 권한부여 문제에 대한 양보안을 발표한 후 정부가 이와 같은 비상사태를 선포하여 당혹해하고 있음.

□ 경제 전반에도 불안감 확산

- 비상사태가 선포된 11월 4일 스리랑카 주식시장은 15% 이상 폭락하였으며, IMF는 빈곤퇴치 프로그램의 자금지원을 보류하는 등 경제 전반에도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음.
- 스리랑카 경제는 2002년 경제성장률이 플러스로 반전한데 이어 금년도 2/4분기에도 5.5% 성장을 기록하는 등 경기 회복기미가 역력하였으나 금번 비상사태가 장기화되거나 내전이 재발될 경우 심각한 타격이 우려됨.
 - 최근 스리랑카 정부는 정부와 타밀반군(LTTE)과의 停戰 지속에 따른 소비자 심리 회복, 저금리 지속, 신중한 금융정책에 따른 인플레이 압력 감소, 외환시장 안정 등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경제 신호에 기인하여 2/4분기 5.5%의 경제성장을 기록하였으며, 부문별로는 공업부문이 전기, 수도, 가스 등의 75.9% 성장에 힘입어 8.9%의 성장을 기록하였으며, 제조업도 선진국 경기회복에 따른 수출증가로 7.3% 성장하였다고 발표한바 있음.
- 또한, 그동안 지속된 휴전상태로 2003년 상반기 對스리랑카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입액은 전년동기대비 300% 이상 증가한 1억 7,000만 달러를 기록하고 정부는 금년에 3억 달러의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였으나 목표 달성에

큰 차질이 우려됨.

〈그림〉 對 스리랑카 외국인직접투자 추이



자료 : World Investment Report 2003, UNCTAD

전문연구원 류재욱 (☎3779-6678)
E-mail : jaeukkor@koreaexim.go.kr